



(착한 목자상(부분)), 4세기 초, 대리석, 피오 크리스티아노 갤러리, 바티칸 박물관

성화 해설

이 착한 목자상은 원래 석관의 한쪽 모서리를 장식하던 조각품이었지만 후에 석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착한 목자상은 길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양을 어깨에 둘러메고 집으로 향하는 목자와 양이 정겨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입당송 시편 33(32),5-6 참조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

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착한 목자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나 는 허락할 수 없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내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장남이 신학생인데 둘째 아들마저 신학교를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셨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행여 아버지가 들으실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잘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결국엔 어머니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제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너를 말린 것이었다. 그러니 오해는 말아라.”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은인들 덕분이다. 특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소개하신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품삯만을 위해 일하는 삯꾼들과는 다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성소란 무엇인가? 성소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말한다. 사제, 수도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삶도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일이다. 우리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 수확할 일꾼을 보내 주십사고 청해야 한다(마태 9,37-38 참조). 그러나 단순히 성소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를 지닌 사제와 수도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일생을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이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 되기 위해 ‘착한 목자’ 처럼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앞장서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제는 바로 착한 목자이다. 그러나 사제도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래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신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오늘날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더욱 더 내어놓을 젊은이들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소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 전체가 성소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성소 계발은 단순히 교회의 몫만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당에서는 매년 한 명 이상의 젊은이를 성소자로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어떨까? 물론 신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는 절대적이다. 신부님들이 성소자 계발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요한 10,14).

열 한 묶음의 사랑



이금주 벨라뎃다 | 방송작가

“너 오늘 좀 다녀가라.” “왜요 어머니?”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너한테 긴히 꼭 할 말이 있어 그래.”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전에 애들 학교 간 새에 잠시 다녀가.” 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 안 오는가 했다. 들어올 때 대문 닫았지?” 날 아랫목에 앉힌 후 어머니는 스웨터를 들쳐 올리고 동여맨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휴, 이노무 꺼 어찌나 뽕뽕 땀이 풀어지지도 않는구나.” 마치 방탄 허리띠 같은 때에 찢 보자기였다. “뭘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펼쳤다. “네가 세어봐라. 만 원짜리 열 개씩 열 하나야.” 반으로 접혀 고무줄로 묶인 돈 열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맞을 거야. 내 여러 번 세어봤어. 그거 풀러 내니 속이 다 씨언하다!” 땀 냄새가 뒤섞인 돈은 열 장을 세는데 두 번이나 펼쳐 눌러야 했다. “그거 니가 잘 알아봐서 이자 쥔 많다는 데다 맡겨 봐라. 두 달 만큼씩 이자는 니가 찾아 애들 간식 사주고, 돈만 잘 가지고 있어.”

백 십만 원 두 달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뭐 하려고 모으세요. 그냥 쓰세요. 아니면 형님한테 맡기세요. 손 저으며도 리질하는 내게 어머니는 종주먹을 대듯 입막음했다. “부담

가질 거 없다. 다 니가 준 용돈 모은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잘 갖고 있어. 내 못 쓰고 죽거든 그때는 니가 쓰도록 해.” 등 떠밀려 대문을 나와 서자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 당겨 손바닥에 여러 번 접힌 만 원 한 장을 놓고 꼭 쥐어 준다. “택시 타고 가거라. 버스에서 소매치기라도 만나면 낭패 볼테니. 두 달에 한번 이자 꼭 찾아서 애들 뉘 사주고...”

이듬해 오월. 어머니는 근 한 달 우리 집에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집까지 실어오고 싶다 하셨다. 내가 제일 바쁘고 애들도 어련데! 유산은 우리만 못 받았는데! 방은 어찌고? 지금처럼 가끔 와 계시는 건 몰라도, 그럼 나만 바보 같잖아! 안 되는 이유는 열 개도 넘었다. 여든아홉 시어머니는 손녀 같은 막내며느리의 눈치를 보시다 그냥 가셨다. 그리고 두 달도 채 안 돼 돌아가셨다.

이 좋은 성모 성월. 흘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성모님과 나란히 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간절한 어머니의 눈길을 외면한 며느리를 용서하라시며 다독이시는 성모님. 넉넉한 미소로 꼬덕이시는 어머니 안나. 주님,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웅졸하고 이기심 많은 저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세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8

부부행위에는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의 출산이라는 불가분의 두 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 생명 12항, 생명의 선물 제2부 4항>.

인간의 성에 대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은 사랑을 바탕으로 남녀가 맺어진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출산이므로 이 두 가지 의의를 무시한 성의 남용은 자연법, 즉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 즉 피임, 단종, 그리고 낙태는 부부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항거하는 것이 됩니다(인간 생명 13-14항 참조). 부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적 결합 없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 인공수정 역시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합니다. 한 인간의 기원이 혼인을 통해 하나가 된 부부의 결합과 사랑의 열매일 때 부부 사이의 육체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응답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가톨릭기도서 97쪽)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서,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성화 소명에서 특기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분에게서 특권을 받은 봉사자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사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굳게 확신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첫째 임무는 가정과 본당, 교회의 모든 영역을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구원 사명을 위해 그들의 삶 전체를 기꺼이 당신께 바치고 당신과 협력하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의 주도적 부르심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요구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62항 참조). 사제들은 성찬례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유로운 주도적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충실한 응답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소의 대화’에 대한 탁월한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과 특히 사제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미사 때마다 그 사랑으로 자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자기를 버리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가 신비롭게 만나, 영혼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에도 존재합니다.

누가 감히 자신이 사제 직무에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인간적 능력만 믿고 봉헌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자유로이 응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지는 ‘공동 책임’이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과 이루는 친교입니다(요한 15,5 참조).

하느님의 주도적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신뢰 가득한 전형적인 대답은 동정 마리아께서 아낌없이 바치는 완전한 ‘아멘’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특히 사제들과 봉헌된 사람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직무 사제직과 봉헌 생활의 길로 들어서시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 맡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의혹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충실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영적 활력을 모두 쏟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투신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흠송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소식

오늘(5월3일)은 '성소주일'로 성소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메시지 발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는 200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들과 전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경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가난의 정신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인간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 주고 실존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해야 할 가난'을 받아들이고" 계신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전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봉축행사의 주제인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포럼 '선교와 미디어'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주최하는 2009년 상반기 문화의 복음화 포럼 '선교와 미디어'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습니다. / 문의: 460-7686(masscom.cbck.or.kr)

5월15일 (금)	교회 안에서 본 김수환 추기경과 미디어(박영대 소장)
	교회 밖에서 본 김수환 추기경과 미디어(정재철 교수)
6월19일 (금)	종교담당기자가 본 천주교 이미지(김한수 기자)
	방송에 비친 천주교 이미지(박문수 평신도 신학자)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5월7일 정규만 마르코 신부(66세) 1981년, 용산
- 5월8일 심재덕 마르코 신부(37세) 1945년, 용산
- 5월8일 백일성 도미니코 신부(50세) 1982년, 용산
- 5월9일 윤을수라우렌시오 신부(64세) 1971년, 용인 수녀원묘지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음악회

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는 103위 한국 순교성인 시성 25주년을 기념해 5월6일(수) 오후 8시, 명동성당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박재광 지휘, 최호영 신부 오르간, 가톨릭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입장권: 1만 원).
· 예약 및 문의: 727-2527 순교자현양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 대상: 교재연구간사(영어번역자, 교회 내 봉사활동자 우대),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대졸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 E-mail: kyccsystem@catholic.or.kr
- 문의: 553-7320~2 / 5월16일(토)까지 접수

평화화랑 전시 안내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7 / 팩스: 752-0489

1	전시시간: 5월6일(수)~26일(화)
전시실	5인(김형영, 마종기, 조광호, 조창환, 한광구)의 가톨릭 신앙시화전
2	전시시간: 5월6일(수)~19일(화)
전시실	최계진(마리아, 수원교구 영동성령성당) 작품전

교구청 알림

서울가톨릭청소년회 '09 청소년 유럽테마여행 (서양미술사 여행) 사업설명회

- 대상: 관심있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 727-2088
- 때, 곳: 5월10일(일) 1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가족의 날

- 대상: 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때, 곳: 5월4일(월) 9시20분(명동성당 마당에서 출발), 갈매못성지(충남 보령) / 921-5094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미사

- 집전: 최창화 몬시뇰 / 주최: 순교자현양위원회
- 문의: 5월6일(수) 18시, 명동성당 / 2269-0413

전·의경 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대상: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전진 받은 55세 이하 교우) / www.catholicpolice.or.kr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故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님 1주기 미사

- 때, 곳: 5월12일 오전 10시, 신천동성당
- 문의: 019-302-1009 평양교구 신우희

전대사를 받기 위한 1일 지방 성지순례

- 때, 곳: 5월17일(일) 오전 8시(전철 사당역에서 출발), 대전교구 여사울·공제리성당
- 회비: 2만5천원 / 선착순 전화 접수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성가책 준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까리따스 수녀회	5. 10. 10시-16시30분	방배동 수녀원	011-9742-2321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5. 10.	구산성지(성지순례)	011-9799-8790
살레시오 수녀회	5. 10. 14시	서울 본원(7호선 신봉역)	011-560-4658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5. 10. 14시	평신도 선교사의 집	929-4841
예수마리아성심전교수녀회	5. 10. 14시	수녀회 본원	010-3227-9446
인보 성체 수녀회	5. 16. 17시-17. 13시	용인 수련원(피정)	011-380-5159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 성심 전교수녀회	5. 10. 13시30분	상도동 성심의 집	010-9330-3104
작은 예수 수도회	5. 10. 14시	수도원 본원(군자동)	011-9920-2111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 16-17.(1박2일)	성북동 수도원	010-9890-8809
천주 섭리 수녀회	5. 10. 14시	수원 가톨릭대 옆 본원	010-3940-3635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5. 10. 13시30분	성산동 수녀원	016-835-4858
하비에르 사도회	5. 10. 14시	하비에르 국제학교내	019-360-564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5. 10. 14시	부산 본원	582-4997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신자들이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오로 해' 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 서울주보에 바오로 사도의 생애, 서간, 사상, 영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사도 바오로의 고통과 ‘한(恨)’의 영성

고통은 인생의 신비이다.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고통의 문제와 씨름했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을 대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고통을 회피하는 길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길.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과 상처로 얻은 물리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불안과 갈등, 죄와 약점, 삶의 무의미와 죽음의 체험까지도 포함된다.

사도 바오로는 이런 고통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내면화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찢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12, 7-9).

사도 바오로가 말한 ‘내 몸에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고질병이거나 말라리아, 간질, 절뚝거리임일수도 있고, 복음 선포 가운데 당한 매질의 후유증, 혹은 이방인 선교 과정에서 나타난 우울증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 적대자나 반대자의 끊임 없는 괴롭힘 등의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투쟁을 꼽기도 한다. 바오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뛰어난 설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2코린 10,10; 사도 20, 9-12 참조) 겪은 부족한 말주변이나 수사학 기술의 부족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른 한 편으로 바오로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들의 목록을 열거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 그가 겪은 옥살이, 매질과 채찍질, 돌질을 당하고, 전도 여행 중에 가는 곳마다 겪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과 고통들을 솔직하게 표현한다(2코린 11,23-28; 12,10; 1코린 4,11-13 참조). 이유가 어쨌든 바오로는 가시와 같은 자신의 내면적 약점과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고통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여겼다.

바오로가 이런 자신의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육체적 고통과 내적 갈등의 여정을 굳이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그리스도 예수님’ (로마 3,24; 1코린 1,1; 4,15)으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이 확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과 고통이 하느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업적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인생의 역설적 신비,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희생이 가져온 새로운 삶과 부활로 드러난 하느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필리 2,8-11; 2코린 13,4 참조). 사도 바오로의 드라마틱한 회심의 체험은(사도 9,4; 22,7; 26,14) 그가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당당한 유대교 랍비의 문화에서(사도 22,3) 충실한 교육을 받은 열정적인 바리사이(필리 3,5-6)로서 가졌던 인간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1코린 4,13) 피할 수 없었던 사도로서의 소명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게 해준 힘이였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이러한 고통의 내면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인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된 고통의 체험들을 ‘한(恨)’으로 내면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한(恨)이란 ‘가슴에 맺힌 응어리진 애환들’을 말한다. 우리가 겪는 한의 체험은 체념과 원한, 좌절과 낙담의 부정적인 체험인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와도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특히 가난과 폭력, 미움과 따돌림, 오해와 편견으로 세상의 바닥을 체험한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아가는 힘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의 체험이 지닌 역동성이다. 가난과 폭력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뛰어난 인내와 현실 긍정의 힘을 지닌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난다. 누가 봐도 동정할 수 있는 현실의 왜곡과 모순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모순이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미련하고 때로 엉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몸에 간직하거나 주변에 걸어두지만, 바로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갈라 6,14)라는 외침에는 고개를 돌린다. 솔직히 우리 세상은 내 약점과 고통보다는 내 장점, 능력, 성공을 자랑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바로로 사는 것도 싫지만, 하느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도

주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맺힌 ‘한’을 복수와 원한으로 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희망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한다. ‘한’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조화로운 세상의 결핍으로 생긴 것이라면, 이 한이 다시금 일치와 조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겪어야 할 신앙인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바오로가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술한 고통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바오로는 예수님의 ‘한’이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로마 8,26)”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전사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피조물이 겪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생명과 평화를 희망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강조한다(로마 8,18-30 참조).

우리 시대는 여전히 모순과 왜곡,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은 창조된 세상의 죄와 무질서를 한탄하면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외아들을 파견하시는 하느님의 ‘통애(痛愛)’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고통은 결코 홀로 버림받은 체험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통 받으시는 하느님의 가슴 아픈 사랑에 뿌리를 박고 있는 희망의 단초이다.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자신을 본받는 사람”(1코린 4,16; 11,1; 필리 3,17)이 되라고 말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체험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바로 고통과 죽음이 나만의 것도, ‘나’ 아닌 ‘너’ 만의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우리 모두의 부활한 삶의 희망이 담긴 ‘신비’(1코린 15,51)라고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바오로 탄생 2000년 기념 특별뮤지컬 사도 바오로 "하느님의 모상"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감동!!

IMAGO 사도 바오로 DEI

“바오로 해”를 지내고 있는 모든 교우들, 특히 청소년들이 꼭 관람했으면 합니다. 이 공연을 통해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진석 추기경).

2008년 제주교구 연동성당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100회 공연, 관객 2만 명을 돌파한 가톨릭 창작뮤지컬 '사도 바오로-이마고 데이(Imago Dei)'가 5월 25일까지 살레시오회 관구관(영등포구 신길6동)에서 서울 양꼬르 공연한다. '이마고 데이(Imago Dei)'는 라틴어로 '하느님의 모상'을 뜻한다.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를 기념해 제주교구 중문성당(주임 현요안 신부)과 바오로뮤지컬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가톨릭 창작뮤지컬 '사도 바오로-이마고 데이' (원작 현미혜, 각본 차지성, 연출 지성구). 박해자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도로 변모하는 바오로의 생애를 담고 있다.

뮤지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오로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막을 연다.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서 극적으로 '하느님의 종'으로 선택받는다. 로마 시민권자이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나는 첫째가는 죄인이었다(1티모 1,15 참조)”라고 고백하는 '바오로'가 된 것이다. 열심한 바리사이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열정의 사도로 변모하는 과정과,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탄탄한 구성으로 펼쳐낸다.

중요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의 모습, 모진 박해와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바오로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상(模像)'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 일정

- 때: 4월30일(목)~5월25일(월)
-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 연구소 부설 교육관 / 전철 7호선 보라매역 3번 출구)
- 공연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연시간	15시	-	15시	20시	20시	15시	15시

5월5일·12일·13일·19일은 공연 없음

- 전화 예매 및 문의: 02)2253-9191
- 인터넷 예매: cafe.daum.net/musicalpaul, 인터파크, www.paolo.net
- 지정 예매처: 성바오로서원(저동, 논현동, 천호동), 바오로딸서원(명동, 분당, 일산, 의정부)

▶입장료: 성인 4만 원, 청소년 3만 원

- 성인 할인: 공연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함(4월30일~5월25일)
- 청소년 할인: 공연 안내문이 게재된 청소년·청년 주보 지참시 50% 할인함(4월30일~5월11일)

알림

모임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목주기도

- 때: 5월7일(목) 10시-15시30분, 땅우1동성당(주최)
- 안수와 미사(중식제공) / 문의: 437-8984

성경 말씀 피정(문의: 455-8836)

- 때: 5월8일(금) 23시10일(일) 14시(2박3일), 가평 작은예수회(주최) / 새성경, 미사도구, 세면도구 준비
- 주제: 마음의 영성(강사: 안창호 신부) / cheonhos.org

천호성지 5월(1박2일) 피정(문의: 063-263-1004, 5)

- 주제: 마음의 영성(강사: 안창호 신부) / cheonhos.org
- 때: 5월23일(토)-24일(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예수회 젊은이의 피정 "나를 찾아서"

- 대상: 남·녀 대학생(2만5천원), 35세 이하 미혼 직장인(3만5천원) / 719-1803(cafe.daum.net/youngRetreat)
- 때: 5월23일(토)-24일(일), 영보수녀원 피정집(과천)

14-B(구로)지구 성령 낮 기도회

- 내용: 말씀과 미사 / 강사: 정의연
- 때: 5월5일(화) 13시, 교동동성당 소성당
- 문의: 011-9060-7851 14-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소록도성당 피정

- 때: 5월16일-17일, 5월23일-24일, 5월30일-31일, 6월6일-7일, 6월13일-14일, 7월4일-5일
- 문의: 755-3309, 011-388-5706 서울 연락 사무소

향기모임

- 대상: 교요속에 기도하고픈 미혼 여성
- 때: 5월6일(수) 19시30분-21시30분, 씨든 피정의 집 / 011-9193-3005 사랑의 씨든수녀회(주최)

청년을 위한 '찬양의 광장' (루하)

- 때: 5월: 매주(금) 오후 7시30분, 동성고등학교 소성당(혜화동) / www.holyspirit.seoul.kr
- 문의: 866-6345, 010-2328-9530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복음화학교 월례 기도모임(새천년복음화사도회)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 기도 및 신앙체합, 말씀(정치우 회장) / 문의: 753-8765, 776-2514
- 때: 5월10일(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7지구 성령찬만, 은혜찬만, 일일 대피정

- 강사: 고영민과 선교세상 / 회비: 3천원(김밥 제공)
- 때: 5월5일(화) 10시-19시(10시 미사로 시작)
- 곳: 태릉성당(전철 6호선 화랑대역 3번 출구)
- 문의: 010-2239-9393 7지구 성령봉사회

다락방 기도회 전국 대피정

- 강사: 박문식 신부(1강), 문호영 신부(2강)
- 미사: 마리아 사제운동 사제단 / 017-321-1247
- 때: 5월5일(토) 9시-17시, 삼성산성지(전철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버스 152, 5522) / 도시락 각자 지참
- 다락방 기도회 성모신심미사: 5월9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메시지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준비)

13-A지구 성령기도회(문의: 010-6236-4250)

- 내용: 미사와 말씀 치유(주최: 13A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때: 5월: 매주(화) 20시-23시30분, 봉천동성당

5월1일 이상기 5월12일 한호성 신부 5월19일 이승주 신부 5월20일 한상우 신부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1일 피정

- 5월4일(월) 9시30분-16시30분, 의정부 주교좌 성당(중식 제공)
- 강사: 정영우 신부(춘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 5월13일(월) 20시-1시, 의정부 녹양동성당 / 011-1746-2120
- 강사: 서창은 회장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영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5월(일)-27일 매주(수) 11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5월6일(수) 영적 치유관? / 조영대 신부

- 5월13일(수) 미신행위에서의 해방 / 김명희 회장

삼성산 2박3일 무료피정

- 때: 5월8일(금) 18시30분-10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내향성기도 그룹 1일 피정(문의: 032-932-8819, 8820)

- 때: 매주(월-금) 11시-15시30분(식사제공 안함)
- 곳: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강화 수도원(주최)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 지도: 강길용 신부 / 755-3309, 011-388-5706
- 때: 6월6일-7일, 6월13일-14일, 6월20일-21일, 6월27일-28일, 7월11일-12일, 7월18일-19일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류형철 신부 / 016-332-8789 가라멜 동정녀회
- 때: 5월4일(월)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선교세상과 함께 하는 음악 피정

- 강사: 이준용 신부, 선교세상(단장: 고영민)
- 때: 5월4일(월) 10시-16시(미사), 삼성산 성지 대강당 / 010-3661-5500, 874-6346 선교세상

2009년 3차 상설 단기 성령세미나

- 때: 5월30일(토) 13시-31일(일) 17시40분(1박3식)
- 곳: 성령봉사회관(신림동) / 계좌번호: 기업은행 074-050848-01-200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문의: 010-3123-0573 성령쇄신봉사회(회비: 5만원)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제주피정'

- 매일미사, 삼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 문의: 773-1455
- 때: 5월10일-12일, 5월20일-23일, 5월24일-26일, 6월7일-9일 /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성가를 통한 회복 프로그램 '함'

- 내용: 고해성사, 성경말씀 묵상, 찬양, 미사와 강복
- 주최: 글라렛선교수도회(라미레노 상가대) / 회비없음
- 때: 5월: 매일 둘째주(토) 17시, 글라렛 선교 수도회
- 문의: 010-8766-2942(http://claretian.hompee.org)

서울 프란치스코 청년회

- 대상: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만 17세-32세 미혼 남녀 누구나
- 때: 5월: 매일 넷째주(토) 16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010-9402-7885(www.youfra.org)

15-A 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부활 대피정

- 강사: 차동엽 신부, 김완식 선교사 / 김밥판매
- 미사: 이종남 신부(15-A 지구 성령 지도 신부)
- 때: 5월4일 9시-17시, 발산동성당 대성당(전철 5호선 우장산역하차 3번 출구) / 2696-1945, 011-350-4929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회비: 11만원(계좌: 부산 045-01-037552-0 (재)티업오신마리아성심 / 문의: 011-9503-0228)
- 때: 5월8일(금)-10일(일), 6월26일(금)-28일(일), 8월17일(월)-19일(수) / 강사: 최봉도 신부
- 곳: 마리아 피정 센터(주최)부산시 남구 우암2동

골롬반 선교센터 고해성사 및 피정지도

- 곳: 전철 4호선 성신역대 입구역 4번 출구 도보 1분

면담	매주(수) 13시-17시, 19시-21시(예약필수)
고해성사	한 사람당 30분 정도 성사불수 있음
피정지도	1일 피정(20명 이상)
장소대관	강당 100명 수용 / 방 30명 숙박 가능
심리상담	이종승 신부 외 2명 / 문의: 953-0613

예수마음 배움터(일산 근교) 피정

- 문의: 031)946-2337, 8(www.jesumaum.org)

예수마음 기도피정	2박3일 5월8일(금)-10일(일), 6월12일(금)-14일(일) 17시30분 시작, 17시 마칩
	4박5일 5월11일(월)-15일(금), 6월1일(월)-5일(금) 14시 시작, 14시 마칩
	8박9일 5월22일(월)-30일(화), 8월10일(월)-18일(화) 14시 시작, 14시 마칩

예이그림	대상: 일반 신자 및 수도자, 성직자
	5월23일(토)-24일(일), 6월6일(토)-7일(일) 15시30분 시작, 17시 마칩
이내오 영신수련 4박5일	6월1일(월)-5일(금) 17시30분 시작, 17시 마칩

토요 침묵피정

- 대상: 35세 미만 청년 / 문의: 011-9910-1198
- 때: 5월16일(토) 10시-17시, 홍자동 예수수도회(주최)

교육

젊은이 초급 기타교실

- 때: 5월: 매주(수) 19시30분 총8회, 가리파스 수녀회(주최) / 010-6474-9968(회비: 3만원)

알코올·도박·컴퓨터 중독 치료공동체

- 중독 상담 및 치료 / 대상: 19-50세 남성
- 주최: 그리스도 수도회 운영(늘 푸른 자활의 집)
- 문의: 031)953-3492(www.green1004.or.kr)

작은 예수회 영어 성경 강좌

- 곳: 교육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010-7764-3885, 011-9942-3535

요한복음	매주(화) 오후 8시-10시
루카복음	매주(금) 오후 8시-10시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in.com)

심리치료 및 음악치료	정서장애, 대인관계 부적응, 자녀의 발달과정 문제
종합심리검사(청소년·성인)	가족간의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가족

6월 ME 서울협의회 주말

- 주제: 성숙한 혼인 생활을 위해(결혼 5년 이상 부부)
- 홈페이지(www.me.or.kr) 참조 / 511-9901, 2

6월12일-14일	서울1106차(서서울84)	성베네딕도 피정의집(장충동)
6월19일-21일	서울1107차(동서울92)	예수고난회 명상의집(우이동)
6월26일-28일	서울1108차(중서울69)	성베네딕도 피정의집(장충동)

매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전문적 심리치료 및 상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 평소와 달리 화를 많이 내거나 반항의 표현으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학생, 부부갈등 또는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에 부모 자녀 갈등이 심한 가족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	지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평가, 결혼만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양업문화 교육원 '신앙인 학교' 개설

- 양업문화 교육원장: 진교훈 / 지도: 구요비 신부
- 강사: 박광용 교수(가톨릭대), 홍승수 교수(서울대), 최창주(전 꾸르실로 한국 대표)
- 때: 5월: 매주(토) 14시-16시, 프라도의 집(성북동 1가 106-43) / 853-1104, 5(교재: 가톨릭 교회 교리서)

5월9일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
5월16일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5월23일	하느님의 계시
5월30일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

열린학교 상담아카데미

- 문의: 2279-5153, 4(www.lifeacademy.or.kr)

목요영성수련	5월7일(목)-6월4일(목) 10시, 19시
출세리과	5월9일(토) 10시
청소년집중수련	5월9일(토)-10일(일), 오늘수련장
의사소통 에니어그램	5월13일(수)-6월10일(수) 10시, 19시
몸맘건강캠프	5월15일(금)-17일(일), 오늘수련장
기초 에니어그램	5월16일(토)-17일(일) 10시
오늘영성수련	5월22일(금)-24일(일), 오늘수련장

간정조절 개선편지, 의사소통훈련, 심리검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자아성정집단	5월7일-6월25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8회)
참자기 찾기 훈련	5월23일(토) 10시-21시 / 24일(일) 10시-17시
T.A 의사소통 훈련과정	5월19일-6월16일 매주(화) 10시-17시(5회)
감수성 훈련	5월28일-6월25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개인상담: 전문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알림

한국여성생활연구원 평생교육프로그램

· 한글(학력 인증을 위한), ABC영어, 컴퓨터교육(기초·디카·블로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성인 문해교재(한글·수학) / 727-2471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 18차 정기포럼

· 주제: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목회적 성찰과 적용 / 문의: 925-3991, 031)227-757
· 발표: 유성준 교수(협성대학교 교목실장)
· 때, 곳: 5월11일(월) 오후 2시4시, 수원 본부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주말 일일피정

· 주제: 하느님 현존체험을 위한 확신과 우리의 태도(강사: 정규한 신부) / 문의: 717-3869
· 때, 곳: 5월9일(토) 10시-16시,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강의실(회비: 1만5천원) / 중식제공·미사있음

예수회 5월 영성강좌

· 주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회비: 1만원)
· 때: 5월6일(수) 오후 1시30분-4시30분
· 강사: 최시영 신부 / 문의: 718-3896, 7 후원회
· 곳: 서강대 이나시오관 강당(개인직접 참석)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센터 프로그램

· 내용: 심리운동(비장애 형제는 무료), 감각통합, 언어, 놀이치료 / 423-7806, 7사회복지사 김미경 수녀
· 대상: 만 3세부터(지적·행동·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 회비: 1만원-3만5천원(각 치료별 회당)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프로그램

· 미디어 리터러시(대중매체를 알아야 아이가 보임)
· 대상: 청소년 교육 지도자, 학부모(강사: 이명천 교수 중앙대 언론정보학과 외 3명) / www.salesioedu.com
· 때, 곳: 5월16일(토)-17일(일) 9시-18시,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3층 / 5월8일(금)까지 접수
· 회비: 10만원(식비, 간식비, 교재비 포함) / 844-0388

미술치료지도사 과정(3단계 과정 / 단계별 10주)

· 대상: 미술치료에 관심있는 모든 분(회비: 단계별 30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379-4803
· 때: 초급 5월9일-7월18일, 중급 7월25일-10월10일, 고급 10월17일-12월19일 매주(토) 오후 1시-7시(개과: 신한은행 100-022-727249)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주최)-종로구 평창동

서울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

제 4기 자원봉사 강사양성 1단계 교육

· 대상: 본당 임원 및 단체장 중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분, 본당활동 경력 5년 이상으로 자원봉사 강사를 희망하는 분 / 선착순 20명
· 때: 5월21일-7월2일 매주(목) 14시-17시, 7월10일(금)-11일(토) 1박2일(이론교육 총 30시간)
· 곳: 가톨릭회관 426호, 본도피정의집(1박2일)
· 강사: 윤석인 소장(회비: 10만원) / 727-2245, 2248

절두산 순교성지 월례피정 및 특별강좌

월례 피정	주제: 성모성월과 함께하는 성모님 영성
	강사: 김태오 신부(인천교구 산곡동성당 주임신부) 때: 5월11일(월) 10시-16시(과건미사 포함) 사전 방문접수(전화접수·당일접수 불가)
특별 강좌	주제: 아버지, 나의 큰바위 얼굴(회비: 1만원)부부 동시 수강시 1만5천원 / 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사무실
	강사: 권길중(영신도 사도직 협의회 교육위원장) 때: 5월31일(일) 13시(100분, 15시미사)

젊은이를 위한 영성수련 수강생 모집

· 때: 매주(화) 19시40분-21시30분(회비: 7만원)
· 곳: 서강대 김대건관 407호 / 705-8163 한국CLC

5월19일	내 인생의 하느님
5월26일	부자 청년과 나
6월2일	가짜 예수, 진짜 예수
6월9일	믿음의 원리
6월16일, 23일	하느님의 뜻을 이는 첫째 방법, 둘째 방법
6월30일	세상 속의 교회
7월7일	마리아(결단과 선택)

5지구 혼인강좌

· 때, 곳: 5월9일(토) 17시-20시, 신내동성당(전철 6호선 봉화산역 3번 출구, 덕소행 망우역 도보, 중화초등학교 정문 앞) / 2208-2577 신내동성당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 대상: 서울대학교 각 본당 노인대학(내용: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이해-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실태, 예방수칙) / 3472-1389 서울 노인보호전문기관
· 때: 4월-12월(연중 실시) / caritas1389@hanmail.net

구립서초유스센터의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 2009년 영어연수 및 IVY LEAGUE 대학교 견학·미국문화탐방 / 대상: 초등 4학년-중 3학년
· 때: 7월15일(수)-8월14일(금) / www.scy.or.kr
· 회비: 6백5십만원(일체 비용 포함) / 3486-0026
· 접수: 4월6일(월) 10시, 서초유스센터(90명 선착순마감) / 접수비: 30만원-신청서 첨부
· 설명회 예정: 4월12일, 26일, 5월3일, 17일 매주(일) 오후 4시, 구립서초유스센터(주최)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자원봉사자 및 차량 봉사자 모집 / 987-6009
· 대상: 06세,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수급 대상자(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디딤자리(주최)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대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 여성
· 이민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을
· 문의: 1-301-947-1955 수련소, 1-301-236-4009 본원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청소년 지도교사 모집

· 대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 지도자
· 홈페이지(www.kkotlove.or.kr) 참조
· 문의: 043)879-0406 연수원 교육관 사무실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 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대상: 봉사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원하시는 분
· 봉사시간: 주 1회(2-3시간) / 오전이나 오후
· 문의: 958-2484, 2319 성 바오로 병원 봉사자실

서초여성회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대상: 남·녀, 사무직, 서비직, 환경관리 등
· 내용: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장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구인처모집 / 5220291(내선 211)

명동성당 로고스 합창단 2009년 정기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교우 및 예비자 20-30대(오디션: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중 선택) / 011-9602-6964 현선아
· 때, 곳: 5월10일(일) 18시, 문화관 2층 소성당

2009학년 후기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내용: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서울반포소재)
· 접수: 5월4일(월)-8일(금)까지(우편접수 가능)
· 5월5일(수)은 접수 받지않음 / www.cuk.ac.kr
· 문의: 2258-7731-3 대표, 2258-7723 사부, 2258-7726 상담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행복의 집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모집

· 대상: 노인요양요양등급 시급급여 수급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 일반대상자 등)
· 위치: 청원군 현도면 삼삼리 360(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인근) / 문의: 043)260-3536-9

미사

성가정입양원 20주년 기념 미사 및 행사

· 때: 5월10일(일) 11시, 성가정입양원마당 / 764-4741-3
·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문의: 3673-2525)

· 때, 곳: 5월6일(수) 오후 2시, 명동성당 소성당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5월 월례미사

· 때, 곳: 5월18일(월) 14시(가조)·19일(화) 14시(나조)·20일(수)14시(다조), 명동성당 소성당 / 775-9052

서소문 순교성지 전대사 미사

· 때, 곳: (일) 오후 3시, (화-토) 오전 10시, 중립동성당 내 서소문 순교자기념관 성당 / 312-5220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대 자녀와 회원을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위령미사

· 후원회 미사: 5월7일(목) 오전 11시
· 위령 미사: 5월28일(목) 오전 11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4-8025

안내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공동체)

· 여성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살레시오 고민 전화상담

· 자녀 및 가정 내 갈등, 고민 들어드림 / 841-8443
· 때: 매주(월-금) 10시-16시(공휴일 휴무)

잠실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상담, 여성쉼터 입소연계
· 상담시간: 9시-17시30분 / 문의: 2202-7806

이천 베네딕도 피정집

· 개인피정, 소그룹과 빠리시디움 피정, 가족피정
· 피정이 아닌 쉽도 가능함(큰 그룹의 단체피정은 하루피정만 가능) / 문의: 011-306-3403

제주 관광을 원하는 교우들에게

· 제주도의 관광 및 성지를 안내하고 차량·호텔·펜션·예약 가능함 /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청소년의 햇살 학부모 상담 전화

· 청소년 자녀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의 고민을 들어드림 / 744-0841(www.hatsal.or.kr)
· 시간: 매주(월-금) 10시-16시(공휴일 휴무)

강북평화의 집(재활용 공동체 '살림')

· 환경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재활용 매장을 운영, 나눠 쓸 수 있는 의류·생활용품 기증 바람 / 문의: 987-3978

치유예술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07-5544)

· 담당: 김A.클라라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개인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심상치료 / 010-9171-2583
· 곳: 수녀원(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제10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 때, 곳: 5월9일(토) 19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서울성모병원 내) / www.pbc.co.kr
· 문의: 2270-2323, 2612 평화방송·평화신문

종로성당 혼인미사 대관 안내

· 종로본당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내고 교우 여러분의 혼인미사 예약을 기다립니다
· 예약요일: (금) 17시, (토) 13시, (일) 14시
· 문의: 765-6101(www.jongnoec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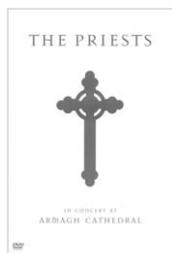
쌤 배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교회단체 '알림' 게재 신청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THE PRIESTS - 프리스트(DVD)

유진 오헤이건, 마틴 오헤이건, 데이비드 딜라지 노래 | 소니뮤직 | 60분 | 2만4천 원 | 구입문의: 530-0935
북아일랜드 아마 대성당에서 펼쳐진 '프리스트'의 첫 번째 라이브 콘서트 DVD이다. 북아일랜드 출신 세 명의 신부들로 이루어진 프리스트는 음악으로 전 세계를 돌며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꼭 알아야 할 어린이 교리 길잡이

프랜신 M. 오코너 지음 | 유영종 · 정은귀 옮김 | 성바오로 | 112쪽 | 5천 원
어린이를 위한 가톨릭 신앙 안내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톨릭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연속성을 높여 준다.



바오로의 기도

류해욱 지음 | 바오로딸 | 204쪽 | 7천 원
기도 시로 쉽게 풀어쓴 사도행전으로 바오로의 행적을 순차적으로 묵상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오로 서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오로의 영적 여정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도록 도와준다.



사랑에 이르는 기도

J. S. 버간 · M. 슈완 공저 | 이훈 · 유진희 공역 |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200쪽 | 1만 원 | 구입문의: 717-3869
성 이나시오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 15가지를 주제로 그에 관한 이나시오의 체험이야기와 그의 영성, 성찰, 성경 말씀, 마침기도를 담았다.



아홉 성자의 선교 이야기

김민수 지음 | 평사리 | 160쪽 | 9천8백 원 | 구입문의: 706-1970
열정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시대의 소명을 행동으로 결행했던 아홉 성자의 아름다운 삶과 선교 활동을 감동 어린 에피소드와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그려냈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했던 선교 방식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재발견할 수 있다.



성경지도(개정판)

성서와함께 편저 | 32쪽 | 6천 원 | 구입문의: 822-0125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무대를 이루는 지리적 배경과 역사 상황을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책이다. 개정판에서는 지명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소개하는 도움말도 다듬고 성경지도도 수정했다.



영적찬가 I·II

십자가의 성 요한 지음 | 서한규 옮김 | 계세마니 | 274·272쪽 | 각 1만7천 원 | 구입문의: 985-1379
영적찬가의 이해와 학습을 돕기 위해 펴낸 '영적찬가 학습서'이다. 시는 최민준 신부님의 번역을 인용했으며,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원문의 의미를 살려 변형했다.



하얀 돌맹이 일곱 개

야나기야게이코 지음 | 표동자 옮김 | 바오로딸 | 92쪽 | 8천5백 원
내일의 희망이요 주인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동화 모음집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개되는 여섯 편의 동화는 늘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시는 성모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M. K. 폴 지음 | 장말희 옮김 | 성바오로 | 136쪽 | 5천5백 원
미사를 집전하러 갔다가 마더 데레사를 만난 저자가 깊은 감명을 받고 그녀의 생애와 여러 일화들,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녀의 어록들을 책으로 엮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 그녀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없는 것마저 있어야

유시찬 지음 |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168쪽 | 6천 원 | 구입문의: 717-3869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을 바탕으로 쓴 글로 영신수련의 전체적 구조에 맞춰 적당한 생각과 느낌들을 배치했다. 저자가 영성사도직을 하며 보낸 지난 10년 세월의 편린들이다.

노영심의 '피아노로 드리는 기도'

· 공연문의: 774-1784 명동성당

노영심의 정오연주 '오월의 피아노'는 2006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올해에는 '피아노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5월7일(목) 12시, 명동성당에서 연주한다.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위한 'Memory of Him'을 주제로 작곡한 '고맙습니다' 외 7곡을 초연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저마다의 기도로 저마다의 시선으로 연주를 듣는 아름다운 관객으로 가득한 연주가 될 것이다.

어린이 환경 뮤지컬 '음식물 쓰레기 마왕'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약 및 문의: 3676-0282
· 공연시간: 평일 16시 / 주말·공휴일·5월4일 12시(5월6일 공연 없음)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지 재미있게 보여주는 어린이 환경 교육 뮤지컬 '음식물 쓰레기 마왕'이 8월30일까지 신연아트홀(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공연한다. 자연나라 대왕님과 음식물 쓰레기 마왕의 대결을 통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환경 상식을 쌓을 수 있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